



지역 소식

봉사 선교사 특집 기사

선교 사업의 소망을 이루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다양한 조직과 분야에서, 선교사의 소망을 지닌 합당한 성도들을 필요로 하신다.

성전에서 한 아름다운 자매를 발견했다. 그 자매는 의식 참여자들에게 의복을 내주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이옥 자매'라고 적힌 그 자매의 명찰을 살펴보며 성전 직원인지 묻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성전 선교사이신가요?"

라고 다시 묻자, 그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아니요, 저는 봉사 선교사에요."라고 답했다.

가능한 시간과 노력을 희생함

이옥 자매는 젊은 선교사처럼 길에서 전도하지는 않지만 역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주당 30시간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매 선교사이다. 이 자매가 오래전부터 품은 선교사로서의 소망은 두 자녀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때 더 커졌다. 가족이 모두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직장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부 선교사로 지원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중, 부부로서가 아니어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선교사로서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전 의복실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성전 단체 방문이 있을 때는 아무리 미리 준비해도 일손이 부족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자매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 선한 손길에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이 자매를 거듭 칭찬했다.

다양한 장소에서 봉사함

봉사 선교사들은 자신의 사정과 능력에 따라 봉사 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이나 장소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가족 역사부에서 봉사하는 광주 스테이크 김은경 자매는 취업 준비생이자 봉사 선교사이며, 광주의 자택에서 선교 사업을 수행한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매일 2~3시간씩 가족 역사 사업을 돕고 있다. 이미지로 저장된

봉사 선교사 부름 및 해임 과정

1. 봉사 선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심한다.



2. 관리 본부에 전화하여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한다.



3.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감독과 접견한다.



4.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하고 신청서를 관리 본부에 보낸다.



5. 스테이크 회장이 부름을 주며, 감독이 성별한다.



6. 봉사한다.



7. 봉사가 끝난 뒤 스테이크 회장에게서 해임받고 회장은 감독에게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 봉사 선교사 책임자 박경렬 형제(010-6737-1441)에게 문의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는 분야

- 한국 취업 센터: 스테이크 및 와드의 취업 담당자들을 돕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
- 홍보 위원회: 인터넷으로 교회 홍보를 돕고 홍보 위원회를 지원함
- 가족 역사부: 족보와 가족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정리하며 기술 지원과 훈련을 실시함
- 복지: 지역 복지 사업 지원
- 선교부: 선교부의 행정 지원
- 종교 교육원: 안내 및 행정 지원
- 북센터: 성전 옆 북센터에서 교회 물품을 판매하고 관리함
- 시설부: 교회 건물 관리 및 청소
- 배부과: 물품 주문 접수 및 배송
- 관리 본부 사무실: 안내 전화 및 교회 문의 전화 응대

가족 역사 기록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일이 그의 선교 사업의 주요 업무이다. 김은경 자매는 이렇게 전한다.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주님께 받은 축복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던 중, 부모님께서 봉사 선교사에 관한 리아호나 기사를 읽어보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읽고 나서, 졸업 후에 귀국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 봉사 선교사로 일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봉사 선교사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기도 했지만,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확신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제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알맞은 일이 주어졌어요. 봉사하는 지금도 계속해서 평안을 느끼고 있어요. 봉사 선교사로서 제가 받은 큰 축복과 기쁨을 다른 분들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함

칠십인 정원회의 오초아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전도하는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전 세계 가족 역사 센터, 감독의 창고, 통조림 공장, 취업 센터, 지역 사회 봉사 조직, 미디어 및 그 밖의 다양한 교회 조직에는 교회 봉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에이드리언 오초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리아호나, 2012년 9월호, 44쪽)

이처럼 여러 교회 조직에 봉사 선교사가 필요하며, 선교사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한다. 안양 스테이크 금천1 와드의 한상선 형제는 2011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봉사 선교사로 봉사했다. 원래 관리 본부 시설부 직원으로 일하던 그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봉사 선교사로 지원했고, 정년퇴임 바로 다음 날부터 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다.

“27년 동안 했던 일을 그대로 했지만, 봉사 선교사로 일하는 것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업무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봉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봉사하다 보니 곧 적응됐고, 늘 하던 일이 봉사가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일에 능률이 오르는 모습을 볼 때 참 기뻐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 봉사 선교사 제도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됐고, 걱정되는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봉사 선교사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확신을 주실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봉사 선교사 추윤희 자매는 홍보 위원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홍보 위원회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온라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며, 때로 부부 선교사의 한글 공부를 도울 때도 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학생이자 봉사 선교사입니다. 처음에 봉사 선교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홍보 위원회에 봉사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봉사하면서 배운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

겸손한 몇몇 봉사 선교사들은 ‘자신은 복음을 전도하는 전임 선교사와 비교하면 하는 일이 없다.’라며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겸손함과 더불어 그들의 뜨거운 간증은 젊은 전임 선교사같이 열정적이다. 지난 7월까지 가족 역사부에서 봉사 선교사로 봉사한 창원 스테이크의 정안채 형제와 김영희 자매 역시, 이러한 겸손함과 열정으로 봉사에 힘을 쏟았다.

김 자매는,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려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웹사이트에서 가족 역사 기록들을 정리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재미도 생기고 점차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봉사 선교사는 봉사의 한 형태로써, 교회의 부서에서 일하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봉사하도록 부름받는다. 이들은 보통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주당 8시간에서 32시간을 봉사한다. 스테이크 회장이 부름을 주고, 감독이 성별한다(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 4.12 참조).

사진, 아래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홍보 위원회의 추윤희 자매, 시설부에서 봉사한 한상선 형제, 가족 역사부에서 봉사한 정안채 형제 부부, 가족 역사부의 김은경 자매.



가족 역사부 김두성 장로의 간증

“고회를 훌쩍 넘은 이 나이에, 주님께서 제 가슴에 달아주시는 선교사 명찰은, 제게 자부심과 한없는 기쁨을 줍니다. 선교사로서 성별되어 명찰을 달고 봉사하는 것이 제 일생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봉사와 희생은 하나님께 바치는 ‘실천적 예배’입니다. 때가 찬 후기의 경륜의 시대에 헌신적인 봉사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봉사 선교사로서 봉사하다 보면 정말 충실하신 성도들을 만나뵙고 배우는 좋은 기회들이 생깁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한쪽 팔을 쓰지 못해도, 휠체어를 타고서도, 개인적 어려움과 지리적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성전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신앙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조상과 그 후손들의 이름을 교회 패밀리 서치 사이트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성전이 세워진 이래 여러 성씨의 계보를 제출하셨던 전국 여러 지역의 훌륭한 성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신앙의 한국 선조들의 흔적을 볼 때 더욱 감개무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세상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영적인 교감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누군가 이 패밀리 서치 사이트에 들어와 열람하다 흔적을 통해 저와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그곳 역사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정 있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운용하는가는 저의 책임입니다. 제 시간을 봉사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어려움을 느끼지만 이렇게 시작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되고, 계속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 기록을 작성하는 중이나 성전에 가서 대리 의식을 받는 중에 때때로 ‘아주 기쁘고,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고맙다!’라고 조상이 말하는 느낌을 받는데,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라고 겸손한 간증을 전한다.

젊은 시절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정 형제 부부는 은퇴 후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내가 3년 전 갑작스레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사경을 헤맸습니다. 아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퇴원했습니다. 이런 계기로 건강이 허락될 때 하루 빨리 봉사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던 차에, “봉사 선교사는 성전이나 선교부의 선교사와는 달리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부름받을 수 있고, 은퇴하지 않고도 주당 8시간 이상 봉사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곧 지원하여 가족 역사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정안채 형제는 이렇게 그의 간증을 전한다.

“세상은 즐겨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라는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다른 분들도 봉사 선교사 부름에 관심을 갖길 바라며, 할 수 있을 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가르침을 행하는 축복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족보는 윗대에 대한 의식 기록을 만드는 데 유용한 축복입니다. 제적등본은 일본 강점기 이후의 기록으로, 출생 중심의 가족기록서 작성의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회원들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조상의 기록을 찾고, 성전에 가서 기록을 제출하고, 대리 의식을 받으며 함께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전임 선교사와 부부 선교사의 소망을 지닌 합당한 성도들은 뜻밖의 어려움으로 선교 사업의 꿈 앞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선교 사업을 원하시며, 예상과는 조금 다른 장소와 분야에서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

봉사 선교사들은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장소와 분야에서 봉사의 기쁨을 누린다. 이들은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봉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 주님께서 이 겸손한 그분의 선교사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봉사를 도우신다. ■

가족의 구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라

광주 스테이크 침단 와드 박원진 자매

십 이사도 정원회의 디 도트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6월 1일, 광주 스테이크를 방문하여 새로운 집회소의 헌납 예배 모임이 열렸다. 말씀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가족의 구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최근 1년간 내게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이 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가며 내 입가에 미소가 흘렸다. 주님의 오묘하고 크신 뜻과 도우심으로 나는 언니 가족 3명과 올해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이 교회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

작년 8월, 나는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했다. 가정주부로서 지내다 보니 세상 친구들이 많지 않았기에 선교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때 뜻하지 않게 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고, 우리 교회에 나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선교사들을 소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와 형부 그리고 예쁜 조카가 침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 부산 스테이크 김해 와드에서 교회 생활과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요, 그들의 구원자로 믿으며 충실히 신앙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 가족은 남편과 나 그리고 두 딸이 있는 화목한 가족이다. 2003년에 처음 선교사를 만나 1년 동안 복음 공부를 한 뒤에 나와 큰딸 윤정이는 침례를 받았고, 둘째 딸 현정이가 개종할 때까지는 또 1년이 걸렸다. 개종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그 후가 더 어려웠다. 나는 경전을 연구하며 느낀 기쁨이 매우 컸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회원들과 자주 만나려 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그중에서도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던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신앙과 가정 생활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바람과는 반대로 남편은 교회에 발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나의 근심이 나날이 커져 갔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서 느끼는 기쁨과 위안이 컸기에 버틸 수 있었다. 안식일 모임이나 다른 모임 때 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회원들을 볼 때마다 많이 부러웠지만 그러한 마음의 고통과 시련은 나의 신앙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내 대에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해도 자녀들만큼은 신앙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1세대 후기 성도로서 내가 모범을 보이며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다.

침례받은 지 만 10년이 되는 올해, 뜻하지 않았던 축복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남편은 어떤 시련을 겪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시련 후에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신앙보다는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신앙을 찾게 되길 간구했지만, 그것은 나의 바람이었지 주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일단 안식일 예배 모임만을 참석해 보겠노라고 했고, 3월 셋째 주부터 모임에 함께 참석하며 스스로 주님의 영을 매우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지난 5월 18일에 침례를 받았다. 우리 가족은 안식일 모임에 가기 전 그날 행해질 특별한 침례식을 생각하며 처음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가족 기도를 했다. 주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함을 느낄 수 있었고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침례식 동안 그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따뜻한 주님의 영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침례 이후 남편은 많이 달라졌다. 물론 그전에도 선한 남편이고 아버지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좀 더 합당한 아들이 되기 위해, 또 신권을 지닌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이제 1년 동안 가족이 모두 잘 준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집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영원히 인봉되는 특별한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때이다.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부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



박원진 자매 부부와 둘째 딸 박현정 자매(가운데)

한국 전쟁과 군복 입은 천사들 I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 기사는 교회와 한민족과의 관계를 김호직 박사의 침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후기 성도 군복인 파슨스(Parsons) 형제가 38선 북쪽 전방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사진이다. 적지 않은 병사들이 모여 있다. 후기 성도 군복들은 한국에서 복음 전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후 1954년에는 13명 정도의 후기 성도 군복이 있었고, 후에 선교부 회장과 성전 회장을 역임하게 된 스펜서 팔머 중위도 그곳에 군복으로 부름을 받아 있었다.



이 목재 건물은 아마도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예배당이라 할 수 있다. 이 건물을 짓는데 6개월이 걸렸으며, 매주 25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한다. 약 10평방 미터의 공간에 6개의 긴 의자와 연단이 있었다. 간판의 교회 이름이 선명하고, 그를 지도자인 이 병사의 이름은 멀린 스티븐슨(Merlin Stephenson)이다. 이 건물은 후기 성도 병사들의 충실함과 믿음을 상징한다 할 수 있으며, 그들은 군복을 입었으나, 복음으로 무장한 주님의 가장 강한 용사요 선교사였다.

지 난 3월과 4월 지역 소식에서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후기 성도 군인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면을 다뤘다. 앞으로 3개월 간, 사진 자료를 통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국 전쟁 동안 주님께서 미치신 손길을 살펴보기로 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전시 상황에서의 와드 감독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교회가 어떤 요청을 했고, 감독이 어떻게 신앙으로 응했는지에 주목하여 읽어보자.

“그때 미국은 또 다른 전쟁에 참전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원이 군 복무 중이었기에 교회 본부에서는 모든 감독에게 당시 교회 잡지인 처치 뉴스(Church News)와 임프루브먼트 이라(Improvement Era)를 각

병사가 받아볼 수 있게 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와드 회원 각자에게 매달 직접 편지를 써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와드 출신 병사는 모두 스물세 명이었습니다. 신권 정원회는 협력하여 잡지 구독료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달마다 편지 스물세 통을 쓰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제 편지 사본과 답장 여러 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금세 눈물이 맺힙니다. 복음대로 살겠다는 한 병사의 다짐,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키겠다는 어떤 해군 병사의 결심이 담긴 편지를 읽을 때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68~69쪽)

다음 달에는 후기 성도 군복의 역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

한국 전쟁(1950~1953)과 후기 성도의 참여에 대한 몇몇 사실들

출처: <http://saintsatwar.com/stories-and-images/interesting-facts/korean-war/>

전 세계적인 영향

- 1950년에 교회 회원 수는 백십만 명 이상이었다.
- 대략 만 구천 명의 후기 성도 군인들이 전쟁 동안 복무했다.

흥미로운 사실

-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미 육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 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까지 성임된 전임 선교사 수는 삼천 명에서 구백 명으로 급감했다.

- 1951년에 제일회장단은 징병 대상이 아닌 젊은 형제들에게만 선교사 부름장을 보냈다. 이외에도 칠십인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으며,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떠난 공백을 많은 기혼 형제들이 대신 부름을 받아 채웠다.
- 27명의 후기 성도 군복이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복무했다. 한국에서 군복이 가장 많았을 때는 1954년으로 9명이 복무했다.
- 1950년에 한국에는 교회 회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케네스 에스 배로우 회장 부부

케네스 에스 배로우 형제와 그의 아내 다이앤 배로우 자매는 2014년 6월부터 3년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한국 부산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았다. 배로우 회장은 최근에 텍사스 휴스턴 남 스테이크 회장에서 해임되었으며,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와드 청남 회장, 스카우트 단장,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 1979년에서 1981년까지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했다. 아내 배로우 자매는 부산에 오기 전에 텍사스 휴스턴 남 선교부에서 봉사 선교사로 의료 전문가 보조 역할을 수행했으며, 와드 청녀 회장단과 초등회 회장단, 스카우트 지도자, 와드 선교사 등으로 봉사했다.

배로우 회장과 자매는 대학생 시절, 여름 방학 동안 텍사스 미들랜드에서 머물던 중 참석한 종교 교육원 수업에서 만났다. 배로우 회장은 아내의 확고한 신앙과 충실한 모범 덕분에 삶의

표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한다. 배로우 회장과 자매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고 있다. 이 중 딸 한 명과 아들 두 명은 귀환 선교사이며, 딸 한 명은 현재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고등학생인 막내아들은 함께 부산으로 이사 왔으며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배로우 회장과 자매는 하이킹과 조깅 등, 자녀들과 여러 야외 활동을 즐겨 하는 편이다.

배로우 회장은 대학에서 화학 공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법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배로우 자매는 대학에서 체육 교육을 공부했다. 배로우 회장은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부회장 및 법률 자문 위원으로 일했으며,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사임했다. 배로우 자매는 주부로 가족을 위해 봉사하며, 더불어 자원 봉사자로서 지역 사회를 위해 활발히 봉사했다. 배로우 회장 부부는 부산에 도착하기 전, 활발했던 모든 활동을 접고



부름을 준비하려 노력했다. 배로우 회장과 자매는 그들의 큰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으로 깊이 겸손해졌으며, 또한 대단히 기쁘고 신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충실한 선교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선교사들은 선지자가 ‘가장 훌륭한 선교사 세대’로 묘사한 이들의 일원입니다. 부산 선교부로 부름받은 선교사들과 한국의 훌륭한 지도자와 회원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모두와 함께 일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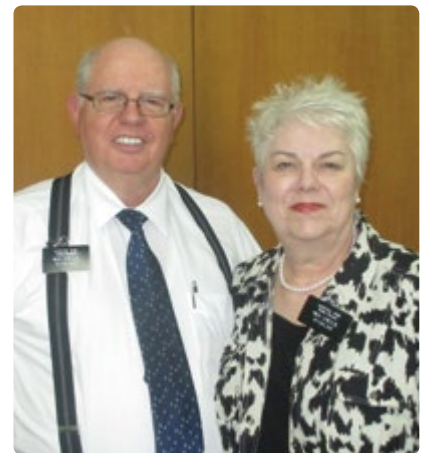
귀환한 부부 선교사의 간증

‘동래 학춤’에서 받은 특별한 느낌

오스틴 텍사스 스테이크 브라이슨 자매

나와 남편은 지난 5월까지 부산 선교부 본부 선교사로 봉사하는 특권을 누렸다. 한국 성도들이 보여주는 강한 신앙 덕분에 우리는 자주 감동을 받았다.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또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그곳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으며, 주님은 한국을 여러 가지 면에서 축복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곤 했다. 특히 주님의 자녀들이 풍부한 재능을 갖도록 축복해주신다고 느꼈다.



파스텔을 사용한 이 그림은, 부산 동래 지역의 전통 춤인 '동래 학춤'을 추는 무용수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나는 이 그림을 통해 나와 남편이 느꼈던 고요한 평안과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림에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긴 두 무용수가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자신의 조상들을 깊이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태도 및 풍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구주께서는 한국 땅 위에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미래의 선교사들을 키우고 계신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인 이 후기에 그들은 기적이 오도록 도울 것이며 우리는 그 기적을 목격할 것이다. 브라이슨 장로와 나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간증하며, 한국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구원 사업에서 작은 일부분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



성탄절 기사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가족 전통에 대한 이야기, 가족과의 특별한 기억, 간증 등을 보내주세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5, 3층

이메일: kah_liahona@daum.net

전화: 02)2232-1441 (내선: 564)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4명/장로 10명



김다진 자매

영동 스테이크
수지 와드
부산 선교부



김시현 장로

청주 스테이크
상당 와드
서울 선교부



김현모 장로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부산 선교부



노재민 장로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대전 선교부



노준철 장로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부산 선교부



서예린 자매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선교부



송찬우 장로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애리조나 투산 선교부



양희일 장로

청주 스테이크
온양 지부
서울 남 선교부



오의림 자매

인천 스테이크
만수 와드
대전 선교부



이학곤 장로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부산 선교부



이호현 장로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서울 선교부



정혜민 자매

영동 스테이크
송파 와드
부산 선교부



하민식 장로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워싱턴 페더럴웨이
선교부



홍근영 장로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서울 선교부